

“광주·전남 문화영재 세계 무대 진출 돕겠다”

오스트리아 빈 문화예술기획사 WCN 송효숙 대표

친선음악회·퍼포먼스 개최 등 한·유럽 소통 앞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광주. 그곳에서 자라나는 미래 꿈나무들이 유럽과 세계로 뻗어나가 아시아 문화교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WCN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음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문화예술기획사 WCN(World Culture Networks)을 이끌고 있는 송효숙(여·53) 대표는 지난주 이뤄진 광주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광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통해 아시아문화 중심지로 도약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에서 유럽과 한국 간 문화교류 증진에 힘쓰고 있는 송 대표는 문화와 통한 소통에 관심이 많다. 특히 광주 출신으로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상대회 대회를 맡았던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의 부인인 송 대표의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21세기 문화로 아시아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WCN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다양한 사업이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전세계로 나가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펼쳐지는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를 한국과 광주에 소개하는 등 유럽과 광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WCN은 지난 10월 한국-불가리아 친선음악회를 개최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지난 4년간 유럽은 물론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K-POP댄스 페스티벌, 난타공연 등을 비롯해 20회 이상 행사를 열었다. 특히 태권도에 타악기를 결합한 퍼포먼스 ‘탈’(TAL)로 한류의 다양성을 실험하기도 했다.

최근 WCN 서울지사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송 대표는 문화예술이 가진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었다.

“20여 년간 유럽에서 생활하며 문화예술 콘텐츠가 소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유럽이란 무대에서 친선음악회를 시작하게 됐습

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은 어디서나 통하게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친선음악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이듬해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에서 무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체코와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진출하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친선음악회가 열릴 때면 현지 교포들은 물론 시민과 정치인, 문화부 관계자까지 다양한 이들이 참석한다. 이들을 상대로 한국 민요와 가곡 등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음악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애국가와 현지 국가를 서로 다른 외도 관람객 모두에게 몽글몽글 감동을 선사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가들을 세계 무대에 진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금까지 친선음악회를 통해 한류를 널리 알리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적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도 값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실력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광주·전남 음악영재들이 유럽이라는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안경환 조선대 교수 베트남 하노이 명예시민



조선대학교 안경환 영어과 교수가 베트남 하노이시 명예시민이 됐다.

안경환 교수는 최근 하노이 시에서 열린 하노이 탈환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하노이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응우옌타오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안 교수는 하노이시가 처음으로 추대된 12명의 외국인 명예시민 가운데 한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한 하노이 명예시민이 됐다. 12명의 명예시민은 러시아인 3명, 일본인 3명, 한국·미국·프랑스·러로스·쿠바·코스타리카 각 1명씩이다.

안 교수는 지난 2004년 베트남 호찌민시 명예시민이 된 데 이어 하노이 명예시민에 추대되며 베트남 2개 도시의 명예시민이 되었다. 안 교수는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베트남 국립 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언어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평화우호훈장, 문화진흥공로훈장을 받은 베트남 전문가로 손꼽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제31회 유아교육제’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 유아교육과는 최근 인문사회관 일원에서 ‘제 31회 동강 유아교육제’를 개최했다. <동강대 제공>

신보기금 호남본부, 중기 애로사항 청취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홍은기)는 최근 광주 한 음식점에서 유승플랜트(주) 등 ‘좋은 일자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제공>



광주시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광주팬클럽’이란 이름의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든 일본 니가타시 시민들이 지난 1일 첫 모임 후 광주유니버시아드 마스코트인 ‘누리비’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문화연구원 제공>

日 니가타 시민들의 ‘광주 사랑’

‘광주팬클럽’ 만들고 U대회·세계수영선수권 성공 기원

광주시청 공무원 동아리 ‘일본문화연구원’(회장 송형석) 초청으로 지난 10월 광주를 찾았던 일본 니가타시 시민 22명이 최근 일본에서 ‘광주팬클럽’이란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광주팬클럽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해 광주팬클럽 설립 소식을 전했다. 자신들을 따뜻하게 환대했던 일본문화연구원 회원들과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들은 내년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특히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활력을 줄 것을 기대하며 광주-니가타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만남으로 두 나라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니가타시와 지속적으로 교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종태 전남대 교수 과학수사 최고 영예상

전남대 법의학고실 박종태 교수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신원 확인과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수사 최고 영예상을 최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제66회 과학수사의 날을 기념해 박 교수와 경기지방경찰청 윤광상 경감(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범검학부장(범과학)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종태 교수는 1993년 전남대 법의학고실을 개설해 광주·전남 지역의 부검 업무를 담당하



며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 봄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들 신원을 확인했고 7월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국과수 부검 결과를 재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소가 설치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우리들병원 서일환씨 대중 역사서 발간 화제

‘...역사 야夜 특talk’ 펴내

현직 병원 행정원장이 역사 이야기를 담은 대중 역사서를 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우리들병원 행정원장 서일환씨. 서 씨는 최근 ‘서일환의 역사 야夜 특talk’(다큐디자인)을 펴냈다. 지난 2012년 5월 15일부터 매일 밤 카카오토크에 올려놓은 역사 이야기(1000개) 가운데 일부(100개)를 골라 책으로 엮어낸 것.

책은 크게 ‘우리 역사’와 ‘전라도’를 다룬 두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남도와 우리 역사에 의미 있는 가치를 준 사람과 사건, 장소, 건물 등이 그 대상이다. 역사 전공자도, 관련 분야 종사자도 아닌 그가 이 일에 나서게 된 이유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교훈 때문이다.

그는 “단재는 역사를 읽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다”며 “신



채오 선생의 역사정신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 책이 본격적인 정사를 다루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뒤안길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세한 규명보다는 당대의 역사가 현대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저자 외에도 SNS 친구들의 댓글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카카오토크에서 일방적 주장이 아닌 상호 해석의 담론을 지향하고 이를 수용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편 오는 20일(저녁 7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4층 다목적실)에서 출간기념회가 예정돼 있다. 판매 이익금 일부는 역사 살리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기정명·민정씨 차남 대웅(주)웅산군 이종하·정지선씨 장녀 은숙(15일) (토) 오후 1시 상무리초천벤치웨딩홀1층 아이비룸 010-9145-9579.

중친회

▲광산 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10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대명가든 062-525-2728.

알림

▲가족과 함께 하는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김옥심 명품김치가 주관하는 김지체험 30일까지 광주시 남구 봉선2로 87 학생과 일반인 등 사전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062-682-5005.

▲사랑애플바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

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성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재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반,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지차 파

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수강생=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템덴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

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디자인 스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제최초 디자인인수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 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납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푸른길동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부음

▲강재홍씨 별세 호일·호성·희성씨 부친상=발인 10일(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101호 故선영례 님(여/81세)		102호 故선동숙 님(여/87세)	
子/子婦: 김남길/전매자, 김종재/염은숙	女/婿: 김옥순/이준수	子/子婦: 장순호/강영숙, 장순명/조영란	女/婿: 장민정/시 중
未亡人: 김수환/김현진/이윤기/김수만/김윤주	未亡人: 장광민/장종원/장종현	未亡人: 이연자	未亡人: 이연자
장 지: 영암 시흥 선영	장 지: 영암시흥 선영	장 지: 영암시흥 선영	장 지: 영암시흥 선영
연락처: 227-4386	연락처: 227-4386	연락처: 227-4386	연락처: 227-4386
301호 故임순례 님(여/92세)			
子/子婦: 김만홍/고영숙, 김복현/김영순, 김태홍/황미숙, 김도연/박금숙	女/婿: 김민정, 김영애/윤주상, 김영순/노인환, 김영희/이강요	未亡人: 김승환, 김동욱	未亡人: 김승환, 김동욱
장 지: 영암시흥 선영	장 지: 영암시흥 선영	장 지: 영암시흥 선영	장 지: 영암시흥 선영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83
401호 故나정실 님(여/88세)		402호 故이규석 님(남/80세)	
子/子婦: 이종원/양진, 이종만/김미경, 이종만/박미경	女/婿: 이정훈/박명섭	子/子婦: 이경원/이서태/나	女/婿: 이경희/이경재, 이경진/호프마티아스
未亡人: 이연자	未亡人: 이연자	未亡人: 이연자	未亡人: 이연자
장 지: 화순도곡 선영	장 지: 화순도곡 선영	장 지: 순창 유동 선영	장 지: 순창 유동 선영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14	연락처: 227-4314

마음까지 빈하
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